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가정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윤완선 목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부흥을 사모하라 2 (겔 37: 1-10)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라 1” (에스겔 37:1-5)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메마른 영혼, 낙망하고 곤고한 영혼에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부흥의 축복을 보여 주십니다. 본문 1-2 절에 하나님께 보여 주신 골짜기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메마름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과 영혼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말라버린 모습, 마음에 소망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열정도, 사랑도 차갑게 식어 버린 모습,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 주신 골짜기에 나딩굴고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린 영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일지도 모르고 나름대로 나의 신앙, 나의 영혼, 나의 삶이 문제 없고, 관찮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영혼이 메말라 마른 뼈처럼 되어 나딩굴고 있었던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불순종하게 하는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기적 큰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형편, 내 감정, 나를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가 영적 메마름입니다. 삶에 감사와 기쁨, 사랑이 없습니다.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초점 맞추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을 점점 메마르게 합니다. 메마름의 원인은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주변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어떠한 불순종과 죄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곤고함과 메마름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어떠한 불순종의 죄임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불평과 원망, 분노와 상처, 좌절과 근심 걱정, 절망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감사와 소망의 삶을 회복하는 부흥이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중보 기도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 실시간 새벽예배 - 주중 새벽 예배 (화-토 6시) 를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2/21	2/28	3/07	3/14
대표기도	윤완선	고현명	조현숙	유영민
헌화성도				
봉사당번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2,719.88	

행사 및 모임

3 월	봄 대청소	날 짜 미 정
	고난주간 특별예배	3 월 30-4 월 2 일 (화-금)
4 월	부활절예배	4 월 4 일 (주일)

목장현황

목장이름	모임 날짜	모임 장소	인원	다음 장소
소망목장	1 월 22 일	이진수	17	교 회
믿음목장	2 월 23 일	교 회	7	교 회
나눔목장	2 월 23 일	유영민	6	심영민
섬김목장	3 월 05 일	이진수	8	이진수
은혜목장	2 월 09 일	정명희	7	윤완선
신바람목장	1 월 11 일	이진수	6	손다니엘
둥지목장	2 월 02 일	이인호	5	오상균
따스한목장	1 월 11 일	김인수	7	서영희
살롬목장	2 월 21 일	조정욱	7	김창용

*목장모임은 각가정에서 돌아가며 모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선교지 안내

목장	목자/목녀	연락처	선교사
소망목장	정병철	510, 415-4156	선교사 (Malaysia)
믿음목장	박종철/박승자	510. 909-8612	유성남 (중국)
나눔목장	유영민/유경애	510. 318-0747	정주환(소망공동체)
섬김목장	이진수/이은진	510. 415-0671	장철호 (미얀마)
은혜목장	윤완선/윤선예	510. 340-1014	조영문 (Vietnam)
신바람목장	유경주	010 6427-2431	박완주/헝가리집시
둥지목장	이화선/이인호	510. 915-5578	K 선교사(Malaysia)
따스한목장	김영란/김인수	510. 468-4720	김정림 (탄자니아)
살롬목장	조현숙/조정욱	510. 396-6952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풍성한 삶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기도에도 동참하지만 속 깊은 곳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삶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나? 나는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며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 축복을 말하고 축복의 기도와 축도를 듣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메마르고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질문은 있지만 이민 생활 속에 외로움을 달래고 사람을 만나는 교제를 위해 교회를 다니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평강, 즉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는 평강과 기쁨이 주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후의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그 축복이 공수표이거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주변을 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희생하고 섬깁니다. 단지 그들의 성격이나 성품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풍성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메마른 삶을 살아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것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주일 예배나 아주 작은 시간만 주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느끼지도,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순간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예배및모임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0 시 30 분	본당
어린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유치부실
영어예배	오전 10 시 30 분	영어부예배실
주일성경공부	주일오후 1 시	유년부실
수요기도회	수요일오후 7 시 30 분	본당
새벽기도회	매일화-토오전 6 시	본당
목장모임	매 주	목장별각가정

섬기는분들

담임목사: 이진수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Paul & Lena	510-872-2212	Paul.lee@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510-415-1696	ejoysong@gmail.com
안수집사: 고헌명, 윤완선		
섬김목장:이진수목사	소망목장: 정병철교사	믿음목장: 박종철목자
나눔목장:유영민목자	따스한목장:김영란목자	은혜목장: 윤완선목자
둥지목장:이화선목자	살롬목장: 조현숙목자	신바람목장: 유경주목자

교회약도

